

염증제거와 항산화 작용에 매우 좋기 때문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파란색을 띄고 있던 들판이 노란 황금색으로 익어가던 초 가을. 평택의 가을 들판은 옆으로는 작은 강줄기와 어울려서 환상적인 저녁 노을을 만들어서 저는 자주 강둑을 걸으면서 논을 보면서 자연에 생명력을 마음에 담아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을을 가슴에 담고 있는데, 중국에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우……화 일세” “화 형님…무슨 일인데, 한국까지 전화하고….국제요금 많이 나옵니다” “하하하하……후 아우에게 이야기를 들었네….고맙네” “들었군요….저도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하하하하……겸손하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네……자네는 우리 중국인에게 생명의 은인이며 자랑스러운 친구이네……” “참…낯 간지럽게 칭찬을…” “무슨 소리인가…….쉐이시에서 포기한 간암 말기 환자를 6개월만에 암의 크기를 깨알만큼 줄여 놓았는데……” “참…깨알보다는 커요……” “하하하하……여하튼 감사하고 고맙네……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되지?” “제가 볼 때 지금 치료방법이 후 국장님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중국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후국장 잘 부탁하네” “중국에 아직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중국에 들어오면 꼭 쉐이시에게 오게나……” “알겠습니다” 12월25일 성탄절 이틀을 남겨놓고 하늘에서 눈이 펄펄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눈으로 온통 덮여지고 하늘이 아름답게 수채화로 그려지는 농장을 우산을 들고 아무도 걸어간 적 없는 길을 걸어 갔습니다. 뒤 돌아 보아도 걸어난 발자국은 한 사람이지만 나를 업어주고 가는 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세상이 그리 외롭지 않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눈은……아픈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새하얀 눈으로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침묵으로 아름다운 내일을 열어주는 따스함으로 대지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2015년 결국 저는 농부의 삶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중국으로